



금융감독원

# 보 도 참 고



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 행복하게

보도	배포 시	배포	2024.10.11.(금)		
담당부서	금융시장안정국 금융시장총괄팀	책임자	국 장	이 진	(02-3145-8170)
		담당자	부국장	김정훈	(02-3145-8180)
금감원, 금융상황 점검회의 개최					

□ 금융감독원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0.25%p 인하 직후인 10.11일(금) 오전 이복현 원장 주재로 금융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음

□ 이복현 원장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는 이를 선반영하여 기준금리보다 낮은 상태\*이고, 시장의 자금수요 확대 등을 감안시 향후 시장금리 방향성 등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라고 평가하고

\* 기준금리 : (인하전) 3.5 → (인하후) 3.25 vs 국고채 3년 : (10.10) 2.962 → (10.11 오전) 2.919

○ 금융시장과 금융회사에 미칠 영향과 리스크를 사전에 면밀히 점검하여 부작용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을 당부

□ 특히, 우리 경제의 주요 부담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는 금리인하에 따라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 등으로 언제라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,

○ 금융회사 스스로 자체적인 관리 노력을 계속해나가되, 가계부채 위험이 지속되는 경우, 필요한 감독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적기에 과감히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등 철저한 관리 기조 유지

□ 아울러 이복현 원장은 금리인하에 따라 예상되는 부문별 리스크 요인에 대해서도 세밀히 관리할 것을 당부

○ 금리인하에 편승하여 부실 PF사업장 정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경공매 등 부실사업장 정리\*를 적극 지도하는 한편,

\* '24.9말 현재 경공매 대상 120조원 중 1.5조원 정리 완료, 6.7조원 경공매 절차 진행중, 3.8조원 진행 예정

정상 및 재구조화 사업장에 대해서는 신디케이트론, 금투업권 펀드 등을 통해 자금이 원활히 공급되어 주택공급 효과가 나타나도록 적극 유도

- 금리인하에도 내수 회복까지는 시차가 존재하여 중소기업의 연체율 상승세는 지속될 수 있으므로 연체율 관리계획 집중점검 및 신속한 정리유도 등 건전성 관리 강화
- 채권은행의 꼼꼼한 정기 신용위험평가(현재~11월말)를 통해 상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한편, 일시적 유동성 애로기업의 경쟁력 회복을 지원
-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부채 평가 등 제도개선\*이 추진중인 가운데, 금리 인하가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,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실시하여 섬세하게 제도 운영

\* 할인율, 해지율 등 보험부채 평가를 위한 주요 가정에 대한 제도 개선

- 마지막으로 이복현 원장은 금리인하의 긍정적 효과가 우리경제와 금융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며
  - 장기간 누적된 고금리 부담으로 경제주체들의 어려움이 컸던 만큼, 금번 기준금리 인하를 계기로 영세/취약 차주 등이 이자 상환부담 경감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여신관행 등의 지속 개선을 강조
  - 특히, 기존 가계대출에 대해서도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대금리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줄 것을 당부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<http://www.fss.or.kr>)